

청년정책 완성도 높인다

완주군, 취업·고용·주거·채무·생활환경 등 결과 토대로 정책 반영

청년층들은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매칭서비스 및 구직 촉진수당을 선호했고, 지역에서 거주하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완주군은 관내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고용 분야의 경우 청년이 취업준비 중 겪는 어려움으로 관련 정보부족(21.4%), 일 경험 부족(18.5%), 스펙 및 경력부족(18.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매칭서비스(34.1%), 구직촉진수당(25.1%), 공익적 일자리 연결(19.4%), 창업컨설팅 및 교육(14.0%) 등을 꼽았다.

이어 △주거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주택

개량 개보수사업 지원, 세어 하우스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채무 분야의 경우 가장 큰 채무사유는 주택마련(40.2%), 사업자금 마련(14%), 학자금 마련(11.2%)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금융정책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저리 대출지원, 저소득 청년대상 저축상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문화 및 여가활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청년 중 75%는 문화 및 여가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에도, 기존 공공여가시설에 대한 이용빈도가 낮아 기존시설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청년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이 지적됐다.

이밖에 △생활환경 만족도에서는 주거, 복지, 자녀교육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나, 교통, 의료건강, 취업고용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완주에서 거주하거나 완주를 생활권으로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유효 표본집단 796명에 대해 설문조사 및 심층집단면접을 활용하여 청년의 완주군 삶에 대한 인식, 문화 및 여가, 교통 및 주거, 소득 및 부채, 구직 및 직업, 경제활동 상태 및 고용 등 6개 영역, 54문항에 걸쳐 이루어졌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완주군 청년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소중한 자산"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를 비롯한 교육·결혼·주거·문화 등 청년이 가진 고민과 생애주기에 맞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정책을 추가 도출해 청년이 완주군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쌀 직불제 신청하세요’

무주군, 쌀·조건불리 등 4월 28일까지 접수

무주군은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 3월 10일까지) 2017 쌀·발·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발·조건불리 직불제는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가경영체 등록이 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 농가는 지역에 따라 진흥지역이 ha당 1백 7만 6,416원, 비진흥지역은 ha당 8만 7,312원을 지급받는다.

또 진흥지역에 있는 쌀 농업직접지불제 대상 농가에는 ha당 57만 5,530원, 비진흥지역의 농가에는 ha당 43만 1,648원이 지급되며 이모작 농가에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로는 농지의 경우 ha당 55만 원, 초지는 ha당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신청일은 2월 13일~2월 24일, 안성면은 2월 13일~3월 3일, 무풍면은 2월 27일~3월 10일, 무주읍은 3월 6일~17일, 적상면은 3월 13일~17일, 부남면은 3월 20일~24일까지

를 집중 접수기간(공통접수센터 설치)으로 정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울 방침으로, 집중접수기간동안에는 해당 읍면에 관련 공무원들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파견된 직원 등 6명이 상주하는 공동접수센터가 설치돼 농가들의 농업경영 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접수를 진행한다.

농업소득과 운수인 친환경농업 담당은 "신청기한을 놓치면 2017년도 직불금 수령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가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농산물 과잉,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직불금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 3월 10일까지) 2017 쌀·발·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을 받아 9월까지 사업신청자 정보공개와 농지형상 이행점검을 마친 후 11월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사진)는 13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2017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했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총 20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듣는 한편,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한승 의원과 이성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과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7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마을회관 방역소독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장수군 전 마을회관에 대한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위생해충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겨울철 마을주민들이 즐겨 찾는 마을회관 내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등 위생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장소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까지 국내 서식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발생은 없지만 동절기 모기 개체수 감소가 여름철 모기 개체수 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절기 마을회관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재정집행 전국 '최우수' 선정

특별교부세 4000만원 확보

진안군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말 기준 누계 집행률과 12월 집행규모 축소 노

력도를 반영해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동종별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진안군은 2016년 최종예산 3,832억원 중 3,313억원을 집행하여 정부 목표인 83.5%를 상회하는 86.46%를 달성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군부 83개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치다.

군은 연말 예산집행 완료를 방지하

고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상황 추진 보고회를 꾸준히 실시하고 적기 추경 편성 등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2017년에도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의 매력 널리 알린다

군, '전북 방문의 해' 맞아 관광객 유치 총력

완주군이 '2017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토탈관광과 연계해 완주여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타겟 관광코스개발, 체험프로그램, 음식점정보서비스 등 관광객 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토탈관광' 일환으로 시행되는 '전북투어패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특별할인가맹점, 모범음식점, 중·대형(200㎡ 이상)규모 일반음식점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완주 맛이 보인다!' 홈페이지 콘텐츠를 제작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가맹점은 삼례문화예술촌, 고산자연휴양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만경강수생생물체험과학관, 완주 휴스네마, 이서물고기마을 등 6개소다. 또한, 전북투어패스 판매소는 삼례문화예술촌,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등 2개소다.

이 외에도 맛집, 숙박, 제과점, 카페, 체험시설 등 57개소의 특별할인가맹점이 있다. 투어패스 시행에 앞서 군은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분야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패스 소지자에 대한 응대 및 협약에 따른 할인혜택 제공 등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려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2016 군세 결산액 863억원 '역대 최고'

작년대비 72억원 증가

전반적인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확보 어려움에도, 2016년도 완주군의 군세 결산액이 역대 최고액인 86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완주군은 군 세입 결산결과 863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5기 마지막 해인 2013년 621억원에 비해 242억원(38.9%), 2015년 791억원에 비해 72억원(9.1%)이 증가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증가추세로 볼 때, 오는 2019년에는 군 세입 예산액이 1000억을 무난히 달성하는 등 조만간 본

격적인 세입예산 '1000억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2016년도 세수 증가요인은 혁신도시 대단위 아파트·원룸·주상복합건물 등 신·증축 증가와, 산업단지 사업체 증가, 토지 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 차량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자부재원의 증가는 군민을 위해 쓰일 예산이 그만큼 증가되었다는 것으로, 무엇보다 앞으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어르신 복지증진, 미래세대 육성 등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물론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정영선 재정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군 세입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대상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 상시 조사,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에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화해 가용 자부재원의 적기 조달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다"며 '군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ARS,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납기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를 도입하는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군민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장수군은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장수' 실현을 위한 2017국가안전대진단을 3월 31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를 점검하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이다.

장수군은 이번 진단 기간에 안전관

리대상 567개 분야 뿐만 아니라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까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하여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명령을 내려 사전 안전예방을 통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대상시설물을 등록해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군민들도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할 수 있다.

장기정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시설물 등의 관리주체에 의한 자체점검이 우선 시 되는 만큼 관리주체의 협조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상반기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13일부터 신청 접수

완주군립 중앙도서관은 2월 13일부터 상반기 문화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10일 군에 따르면 3월부터 시작되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은 도란도란 동화구연(3급), 책놀이지도사(3급)으로 중앙도서관 3층 문화강좌실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

완주군민의 독서역량 강화와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도란도란 동화구연'은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습을 통

해 이야기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기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책놀이 지도사는 그림책을 활용한 책놀이를 통해 어린이에게 책의 흥미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책놀이 교수법에 대해 배운다.

프로그램 접수는 13일부터 선착순으로 방문 및 전화접수 받으며, 강의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63-290-2659) 및 홈페이지(lib.wan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군은 공공도서관 5개소, 작은도서관 10개소, 학교마을도서관 4개소로, 2016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 2016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지정 인증제 최

우수상, 2016 전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전북 혁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라 지식정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완주군 문화예술과 이용철 과장은 "완주군은 군민의 행복지수와 문화지수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강화해 완주군민이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으뜸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방문

주민과의 소통행정 펼쳐

무주군 무주읍 주민자치센터가 지난해 12월 무주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주민들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박희영 무주읍장을 비롯한 맞춤형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2월 7일부터 10일까지 가림경로당 등 무주읍 관내 경로당 60곳을 방문해 친절을 하며 인부를 살펴보는 등 현장행정 추진의지를 다졌다.

경로당 순회방문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무주읍에서 추진하는 '맞춤형복지와 복지허브화' 정책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순회방문은 "이렇게 와서 살아가는 얘기도 같이 하고 노

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해주니 참 좋다"며 "우리 무주가 정으로 든든하게 두루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스티장을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발굴하고, △가동 불편한 주민들을 찾아가 상담·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복지허브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읍 박희영 읍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만큼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발로 뛰는 현장행정, 주민들 개개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맞춤형 복지행정이 더불어함께사는 무주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로타리클럽, 장학금 전달

국제로타리클럽 3670지구 장수로타리클럽(회장 손재호)은 장수고등학교 졸업생을 맞이하여 장수로타리클럽 인터랙티브 장수고등학교 김윤희의 3명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장수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장학사업 일환으로 학생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장수군 고등학교 학생 10명에게 50만원씩을 관내 중학생 5명에게 270만원 등 총 77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면학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